

동남해안지역(경주-포항-울산지역) 청동기시대 편년

김 현 식
울산문화재연구원

〈 목 차 〉

I. 머리말	III. 병행관계
II. 편년	IV. 맺음말

I. 머리말

편년 대상지역은 동남해안지역(행정구역상으로는 경주, 포항, 울산지역)이며, 편년 대상이 되는 고고자료는 토기(특히, 문양), 주거지, 석축, 석도 등이다. 편년방법은 발생순서배열법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AMS연대를 부분적으로 참고하였다.

편년은 세분화보다 객관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개개 유적의 시간적 위치를 정하는 편년 보다는 각 고고학적 단위의 변화흐름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II. 편년

1. 분류

편년 대상이 되는 고고자료를 <표 1>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1> 분류

	분 류	비 고
복 합 문	이중구연단사신	
	이중구연단사신+문양	이중구연단사신+공열or구순각목or구순각목공열
	구순각목공열	구순각목문과 공열문이 함께 시문
	단사신+문양	단사신+공열or구순각목or구순각목공열
	날알공열	날알문과 공열문이 함께 시문

〈표 3〉 동남해안지역 편년

	시기	토기문양	석기상	주거지	취락
BP, 3000-	조기	I	무경식석촉 방형, 어형, 주형석도 공존 주상편인석부 출현	둔산식	조기는 층적지 중심 취락의 규모 작음. 대형 중소형 주거지 공존
BP, 2900-		I		혼암리식, 관산리식, 울산식 공존	
	전기	II	무경식, 이단경식 공존 주형석도 급증	울산식주거지 비율 증가함	취락의 규모 커짐 구릉 중심 대형 중소형 주거지 공존
BP, 2500-		I	일단경식석촉 유행 주형석도 유행	울산식주거지	환호출현 대규모 취락 층적지로 취락이 확대 주거지규모가 작아짐
	II				
	III				

3. 변화상과 계보

조기(I기)와 전기(II~III)는 토기문양과 주거지 형태에서 많은 차이가 확인됨으로 상호 계승관계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 동남해안지역 돌대문토기는 한반도 돌대문토기문토기 문화에서 비교적 늦은 시기로 편년되는 토기양식에 해당된다(천선행 2005; 정원철 2012).

전기와 후기는 토기문양, 주거지의 형태, 석기상에서 상호 계승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이수홍 2005; 천선행 2006). 특히 토기양식은 공반관계(표4 참조)에서 ‘가락동→혼암리→역삼동 및 검단리식’의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발표자(김현식 2008)가 분석한 호서지방 토기양식의 변화와 일맥상통한다. 그 외 석기상의 변화, 주거지의 변화 등은 기존의 편년안과 거의 동일하다.

〈표 4〉 토기문양의 공반관계

가락동식, 혼암리식, 역삼동식의 공반관계			가락동식, 혼암리식, 검단리식토기의 공반관계			
이중구연단사 선	이중구연단사 선+문양	구순각목공열	이중구연단사 선	이중구연단사 선+문양	단사선+ 문양	날알공열
●			●			
●	●		●	●		
●	●	●	●	●	●	
	●	●		●	●	
		●			●	
					●	●
					●	●

가락동식 → 혼암리식 → 역삼동식 + 검단리식

III. 병행관계

전술한바와 같이 동남해안지역 전기 문화는 재지의 조기를 계승한 문화가 아니다. 인접한 영남내륙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는 <표 5> 와 같이 편년할 수 있는데(김현식 2011), 대략 영남내륙지역 전기 I 단계말 II 단계초에 해당되는 시기가 동남해안지역 II 단계와 양상이 유사하다. 따라서 영남내륙지역 전기 I 단계 말 정도에 동남해안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영남내륙지역 I 단계는 호서지방 가락동II단계(이형원 2002)와 토기문양, 주거지의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영남내륙지역 전기 문화는 호서지방 가락동유형II단계 문화가 확산되어 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현식 2008a).

<표 5> 영남내륙지역 편년(김현식 2011에서 일부수정)

	복합문					단독문				황대구획	탄소연대 (B.P)	단계
	이중구연, 단사선	이중구연 단사선 구순각목	이중구연 단사선 공열	구순각목 공열	구순각목 공열	구순각목	공열	날알	횡선			
경산옥곡리A42	●					●						I
서변동46	●					●						
대봉동10	●					●						
대구상동(정화II)4	●					●						
대구상동(정화I)12	●					●						
대구상동(정화I)5	●	●										
대구상동(수성초)14	●	●										
대구대봉동16	●	●				●						
대구상인동7		●				●						
대구상인동5		●				●				3140±50		
대구서변동48		●					●				II	
대구대봉동23		●				●						
청도진라71		●				●				2980±60		
대구상동(수성초)16			●			●						
대구상동(수성초)15			●			●					III	
영천청정3				●		●	●					
경산옥곡리A46				●		●						
대구대봉동19						●	●					
대구월성1						●	●					
대구서변동42						●	●					
영천청정4						●	●					
청도진라3						●	●			2830±40		

〈표 6〉 병행관계

		호서지역	영남내륙	동남해안지역
BP.3300	조기	가락동 I 단계	돌대문토기, 상촌리식토기	
BP.3000				
BP.2900	전기	가락동 II 단계	전기 I 단계	전기 I 단계
BP.2700		가락동 III 단계	전기 II 단계	
BP.2500	후기	송국리유형		전기 III 단계
				전기 II 단계
				후기 I 단계
				후기 II 단계
				후기 III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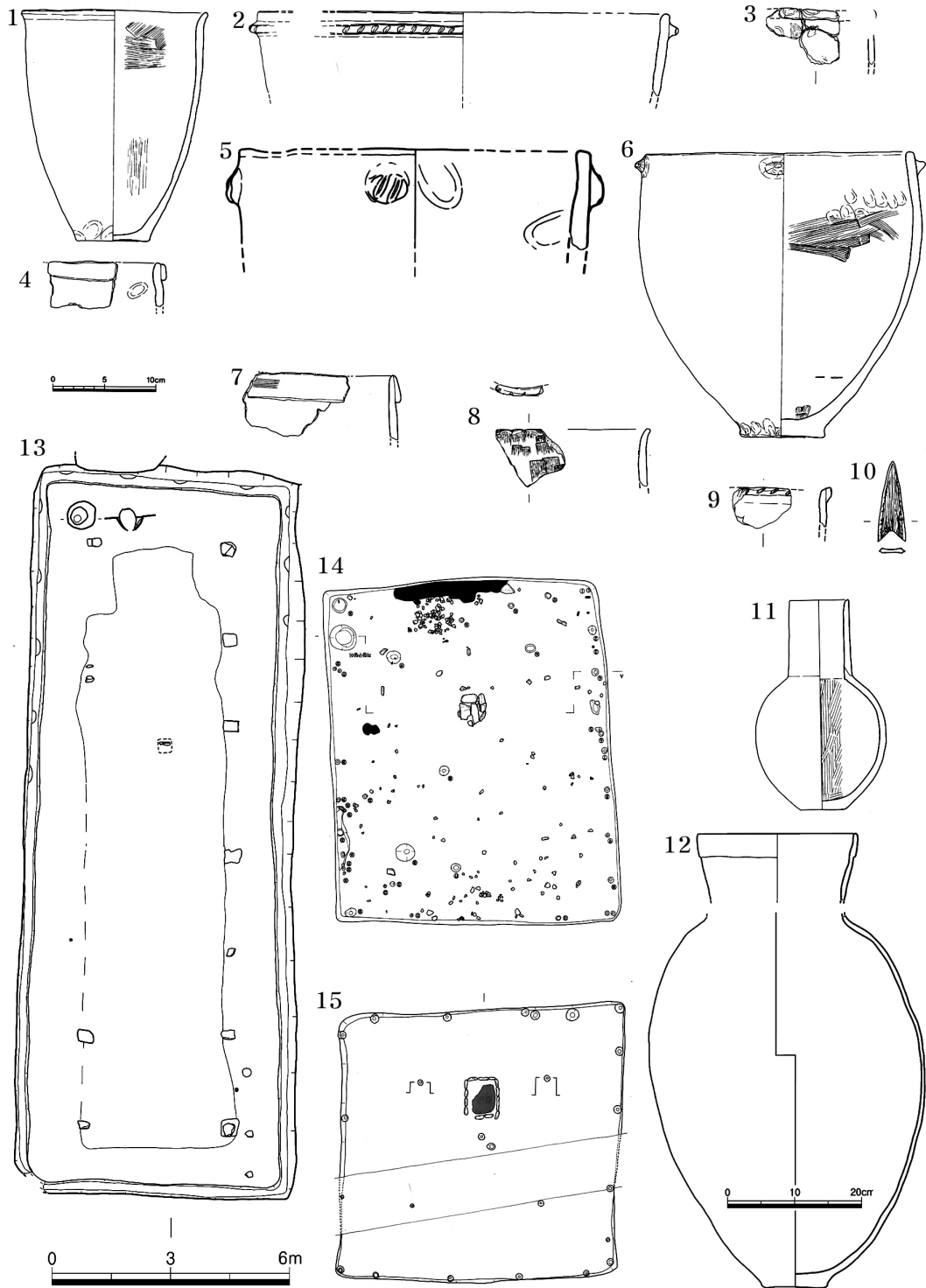
IV. 맺음말

이상으로 발표문을 마친다. 발표자의 편년은 기존의 동남해안지역 편년(동진숙 2003; 황현진 2004; 이수홍 2005; 천선행 2005; 김현식 2006; 안재호 2007)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은 물질문화의 변화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약간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결국, 영남지방 청동기시대 전기 문화는 호서지방의 가락동유형이 확산되어 형성된 문화이며, 한강유역의 역삼동유형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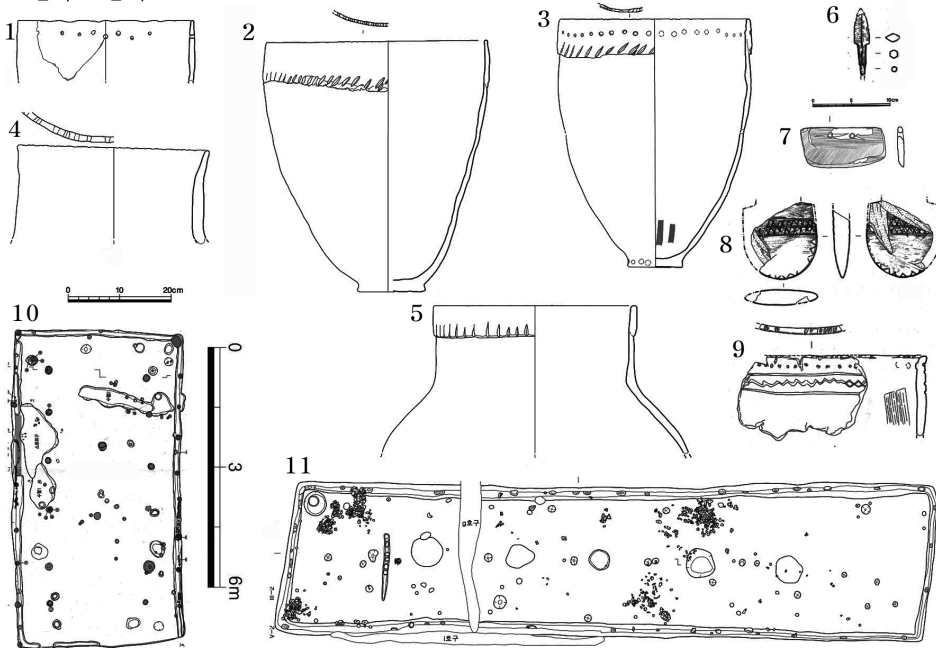
호서지방 가락동유형 I 단계의 물질문화상이 남한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양상이라는 점, 호서지방 가락동유형 I 단계 분포지역(금강유역)에는 돌대문토기문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탄소연대에서 호서지방 가락동 I 단계와 돌대문토기문화의 출현시점이 비슷하다는 점 등을 볼 때, 남한 조기는 가락동 I 단계, 돌대문토기문화, 상촌리식토기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호서지방 가락동유형 I 단계+돌대문토기+상촌리식토기의 문화상이 서북한지방 청동기시대 전기의 문화상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볼 때 남한 청동기시대 초기 문화는 서북한지방 청동기시대 전기문화의 직접전파로 출현한 것이다. 따라서 조기의 문화사적 의미는 신석기-청동기의 ‘전환기’기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출현기’이다(김현식 200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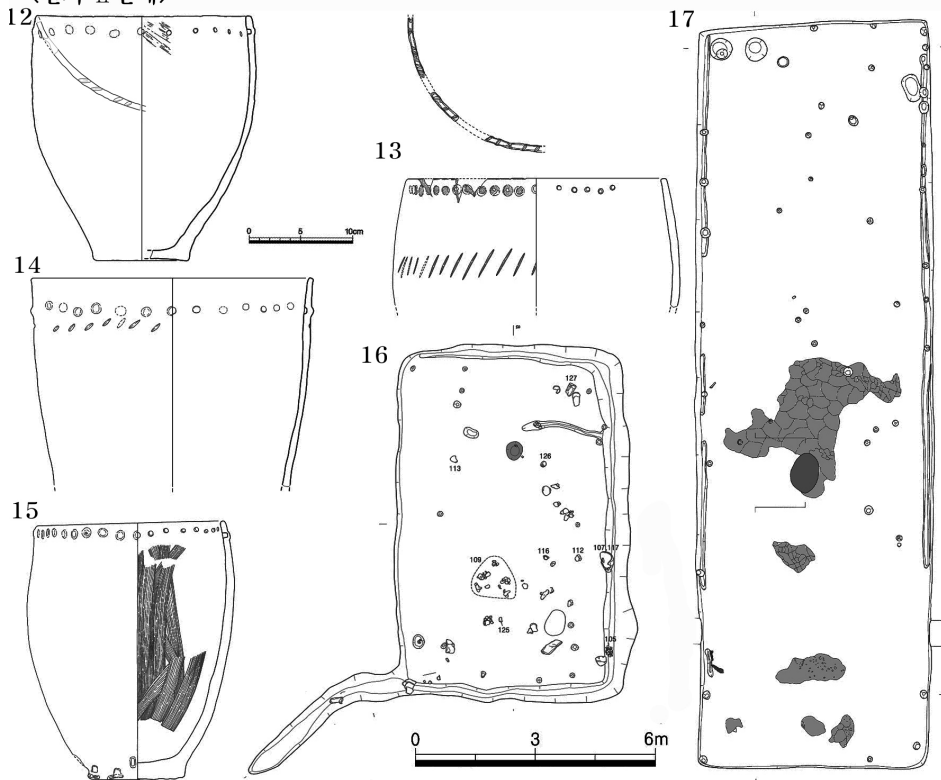


도면 1. 동남해안지역 조기(경주 충효동 2호-1·2·3·5·9·10·14, 경주 충효동 3호-6, 경주 금장리 8호-8, 울산 구영리 V-1지구 28호-4·7·15, 울산 달천3차 5호-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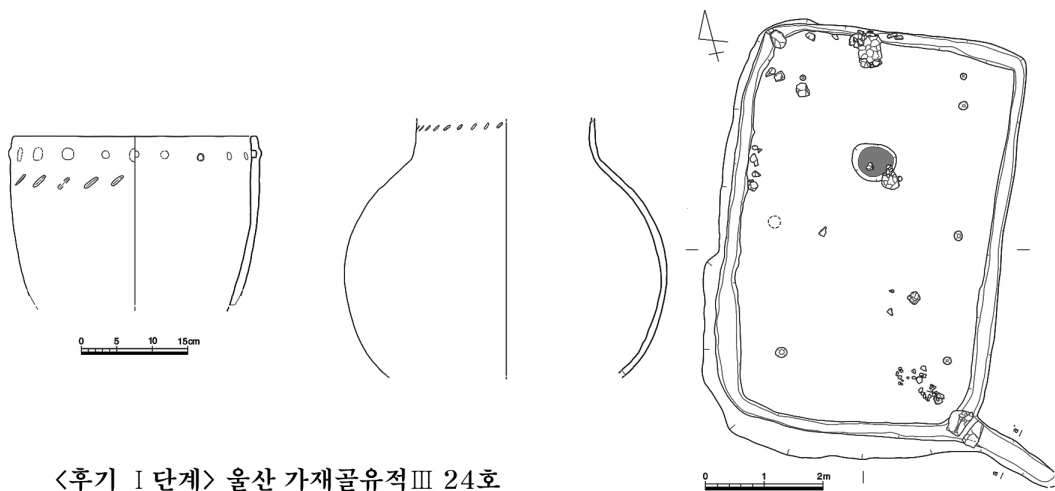
<전기 I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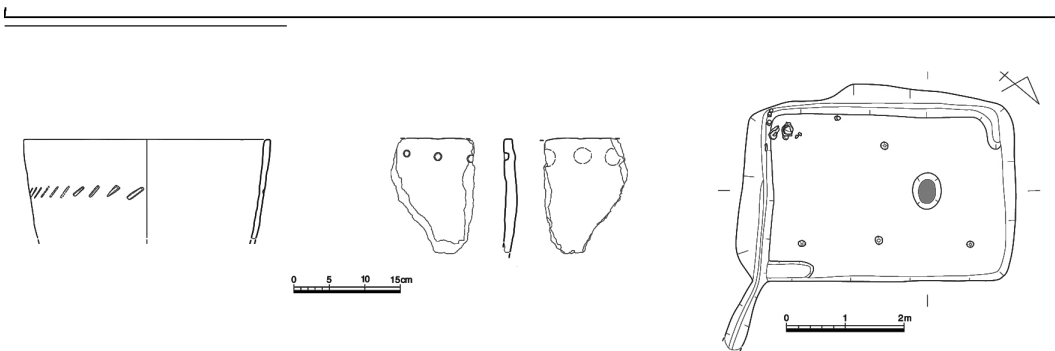
<전기 II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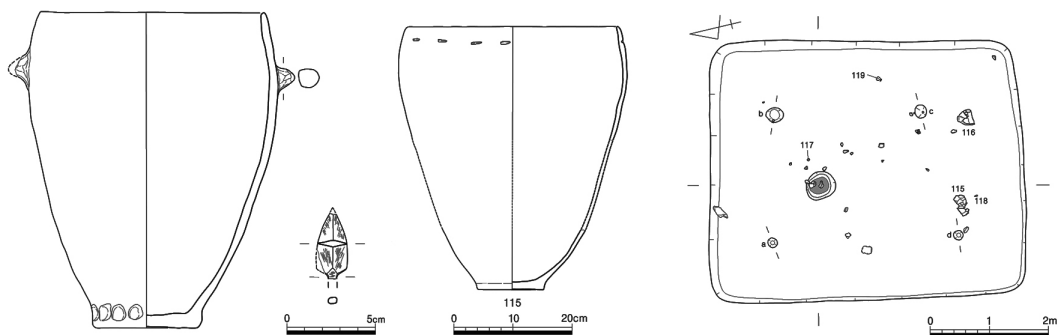
도면 2. 동남해안지역 전기(울산 교동리192-37 9호-1-5-11, 울산 천곡동나지구-6-8-10, 경주 감산리 1호-7-9, 경주 덕천리 11호-13-15-17, 울산 가재골 | 16호-14-16, 울산 가재골 III 19호-12)



〈후기 I 단계〉 울산 가재골유적Ⅲ 24호



〈후기 II 단계〉 울산 가재골유적Ⅲ 16호



〈후기 III 단계〉 울산 입암리유적 18호

도면 3. 동남해안지역 후기

참고문헌

〈보고서는 생략함〉

- 김현식, 2006,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의 형성과정과 출현배경」, 『한국상고사학보』54.
- _____, 2008a, 「호서지방 전기 무문토기 문양의 변천과정 연구」, 『嶺南考古學』44호.
- _____, 2008b, 「남한 초기-전기 문화사적 의미」, 『고고광장』2호, 부산고고학연구회.
- _____, 2011, 「영남지방 무문토기 양식의 시공간적 의미」, 『동아문화』10,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 董眞淑, 2003, 『嶺南地方 青銅器文化의 變遷』,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安在晧, 1996, 「無文土器時代 聚落의 變遷」,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 _____,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34, 韓國考古學會.
- _____, 2007, 「編年을 위한 屬性配列法」, 『고고광장』창간호, 부산고고학연구회.
- 李秀鴻, 2005, 『檢丹里式土器에 대한 一考察』,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8,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의 변화」, 『한국청동기학보』2, 한국청동기학회.
- 李亨源, 2002, 『韓國 青銅器時代 前期 中部地域 無文土器 編年 研究』忠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鄭元喆, 2012, 「中部地域 突帶文土器의 編年 研究」, 『韓國青銅器學報』11.
- 千羨幸, 2005, 「한반도 돌대문토기의 형성과 전개」, 『한국고고학보』57, 한국고고학회.
- _____, 2006, 「영남지방 무문토기시대 중기로의 문양구성 변화」, 『石軒鄭澄元教授停年退任紀念論』.
- 黃炫眞, 2004, 『嶺南地域 無文土器의 地域性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